

선교학 개론

J. H. Bavinck 지음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issions.

전호진 역, 성광문화사, 1980

김철봉

(서울은강교회 목사)

저자 J. H. Bavinck는 1895년 화란에서 출생하였는데 그의 아버지는 목사이며 저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Hermann Bavinck라는 죽지간이다. 그는 화란 자유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전공하였고, 중세 신비주의자 Heinrich Suso에 관한 연구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1919년 이후 약 20년간 Indonesia에서 직접 선교활동에 종사하였으며 그 이후 1939년부터 세상을 떠날 때 까지 25년간은 보교에서 선교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Bavinck 교수가 선교학에 끼친 학문적 공헌은 지대하다. 그는 성경적 선교이론을 수립하였고 교회밖의 선교단체에 의해서가 아니고 교회 스스로가 직접 선교할 것을 역설하였다. 그는 Elenctics라는 용어를 만들고 이 이론을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킨 빼놓을 수 없는 신학업적을 세웠다.

여기 소개하는 Bavinck의 선교학 개론은 총 3부 14장으로 된 책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선교학의 세 가지 큰 풀격을 선교이론(The Theory of Missions), 비교 종교학(Elenctics), 선교역사(The History of Missions)로 대별하고 있다.

제1부 선교이론에서는 선교이론에 관한 몇몇 학자들의 의견을 소개하고서 이어 구약성경과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선교개념을 살펴보 있다. 구약성경을 자세히 관심있게 연구하면 이방나라의 장래가 중요하고도 계속적인 선교대상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교에 관한 복음서의 견해를 요약해본다면 선교개념 자체는 구원에 대한 메시아적 기대(Messianic Hope)로부터 주의 깊고 조심스럽게 파생되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교의 개념은 선교자체가 교회의 사명이라는

인식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 일관되게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Bavinck는 선교학에서 필연코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개혁파 선교학의 선구자들인 Voetius, Warneck 등의 분류방법을 소개하면서 이 문제점들이 구약과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비교적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결 익숙한 나아가서는 Bavinck 선교이론을 선교의 기초(The Foundation of Missions), 선교의 방법(The Missionary Approach), 선교의 목적(The Goal of Missions)으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제2부 비교 종교학(Elenctics)에서는 Elenctics의 본질, 위치 그리고 과제에 대하여 간략하나마 일목요연하게 다루어 놓았다. Elenctics는 비기독교종교를 바로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선교학은 Elenctics 없이는 어렵다. 왜냐하면 선교이론은 타종교를 적절히 평가하지 못하는 한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타종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호역할을 담당하는 이 비교 종교학(Elenctics)이 선교학에서 다루어질 때는 회개에 대한 요청을 빼뜨려서는 안 된다(p. 229).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Elenctics는 세계의 제종교들을 살피고 오류를 폭로해야 된다. 세계의 종교사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투쟁사이다. 즉 신을 찾고 구하려함에도 불구하고 신에게서 도피하기를 시도하는 결과가 된다(p. 272).

Elenctics는 기독교로 하여금 먼저 자신의 척나라한 모습을 반사시켜 볼 수

있게 하고 다음에 타종교를 향하여 면박할 자세를 갖게 함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p. 277).

제3부 선교역사에서는 선교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그 본질문제와 위치,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선교역사란 신학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과 전 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작정에 관계되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선교사들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무엇을 행하셨느냐가 강조되어야 한다(p. 281).

Bavinck는 선교역사가 기독교회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교회사와는 구별된 연구분야로 간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한다(p. 287). 물론 선교역사가 선교의 기초를 제공할 만한 위치에는 있지 않지만 선교활동을 위한 위대한 동기 즉 하나님의 뜻기가 역사의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났던가를 살펴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선교역사를 논할 때 선교의 시대구분(Periodization)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다. 저자는 Otto Dibelius, Schmidlin, Latourette (p. 293~) 등이 분류한 선교시대구분을 소개하면서 저자는 똑똑한 스타일—선교 문화권의 변천에 따른 구분이 아닌 그 시대 교회들의 선교활동원리면을 중심으로 구분—이론을 전개한다(p. 293~). Bavinck의 선교역사 시대구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연대기적 구분이나 문화권의 변천에 따른 구분방법과는 또 다른 차도인 교회의 선교활동 원리면에서 다루어졌다는 데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Bavinck는 아직 초창기와도 같은 선교학분야에 팔복할 만한 학문적 정립을 시도한 분이었으며 그중 하나의 결실이 이책이라고 볼 수 있다. 45년간을 직접 선교사로서, 또 대학의 교수로서 선교에 몸바친 그로서는 선교학의 학문적 이론을 실속있게 체계화시킬 수 있었다. 이 시대는 선교의

마지막 불꽃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이 방면의 학문적 이론과 체계가 더욱 세밀화되어지고 활발해져야 할 중요한 시기에 선교학 분야의 고전(古典)이라고 할 수 있는 Bavinck의 선교학개론이 우리 말로 번역되어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교회와 신학계에 기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재판이 나올 때는 맨끝에 Bibliography를 첨부했으면 좋겠다.

서평

Polished Lenses

J. A. L. Taljaard 지음

Potchefstroom, Pro Rege Press
1976.

김용섭
(고신대학교수 교육학)

1. 저자에 대하여

화란 자유대학의 Dooyeweerd 교수와 Vollenhoven 교수등에 의해 비롯된 철학운동이 하나님을 중심한 전전한 세계관과 인생관은 물론, 천학의 근원과 제일 올바른 인식론을 정립하여 “기독교철학”이란 하나님의 새로운 학문적 체계를 수립하므로 인간의 모든 학적추구에 정당한 규범을 제시해 주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이 철학사상은 화란과 밀접한 문화적 교류를 갖고 있는 남아공화국과 미국 및 카나다의 일부지방에 있는 개혁주의 학자들에 의해 한층 심화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수정되기도 하면서 계속하여 그 영향력을 넓혀 가고 있다. 특히 남아공화국에 있어서는 Potchefstroom 대학의 고유한 철학의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있던 H.G. Stoker와 B. Duvenage 등 저명한 교수들에 의해 Amsterdam의 기독교철학이 높은 차원의 겹토를 거쳐 한층 심화되고 발전되었던 것이다. 본 Polished

Lenses의 저자인 J. A. L. Taljaard 교수는 이미 별세했거나 은퇴한 동대학의 선배교수들에 이어 현재 65세의 나이로 Potchefstroom 철학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쟁쟁한 칼빈주의 학자이다. 그는 Potchefstroom 대학에서 선학에비과정을 마친 후 B.A. 학위를 얻었고(1945), 다시 동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여 M.A. 학위를 얻은 후 화란 자유대학에 가서 Vollenhoven 문학에서 철학자 Franz Brentano에 관한 논문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얻은바 있다(1954). 그는 이미 1946년에 모교에서 조교로 학자로서의 생애를 시작했었고, Amsterdam에서 돌아온 후에는 철학과 철학학을 강의하면서 1964년에는 정교수로 승진되었고 이듬해 부터 1972년까지는 철학과장으로 재임했으며 현재에 이르기 까지 Potchefstroom 철학(남아철학)의 지주로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철학의 수호자요 새로운 국면으로의 개척자로서 개혁주의 사상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분이다. Stoker, Duvenage 등 대부분의 남아학자들과 마찬